

3주차

국역체제(國役體制)의 붕괴와 양천제(良賤制)의 약화

김 성 우

- 15세기 조선 왕조의 경제 발전과 재정 건정성을 살펴본다.
- 연산군의 폭정으로 인한 체제 위기를 설명할 수 있다.
- 연산군 이후 국가재정의 위기와 개혁운동의 좌절 과정을 살펴본다.
-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로 인한 양천제의 동요를 설명할 수 있다.
- 양인층의 몰락과 노비의 급증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.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학습내용

01. 15세기: 이상적인 왕조 체제

- 성군(聖君)과 현신(賢臣)들의 조우
- 경제 발전과 재정 건전성

02. 연산군(燕山君)의 폭정과 체제 위기

- 급증하는 왕실 재정
- 연산군의 폭정

03. 국가재정의 파탄과 조세 부담의 증가

- 연산군의 유산
- 국가재정의 위기
- 개혁 운동의 전개와 좌절

04. 농민층의 경제적 위기와 양천제 동요

- 증가 일로의 부세
- 방납구조(防納構造)
- 양인층의 몰락

05. 양인층(良人層)의 몰락과 노비(奴婢)의 급증

- 양인층의 사회적, 경제적 지위
- 양인층의 국역 부담 변화와 계층 분화
- 노비층의 증가와 법제 변화
- 멸망을 목전에 둔 왕조

1차시

15세기: 이상적인 왕조 체제

학습목표

- 조선의 성군과 현신들의 등장을 살펴본다.
- 15세기 조선왕조의 경제 발전과 재정 건정성을 이해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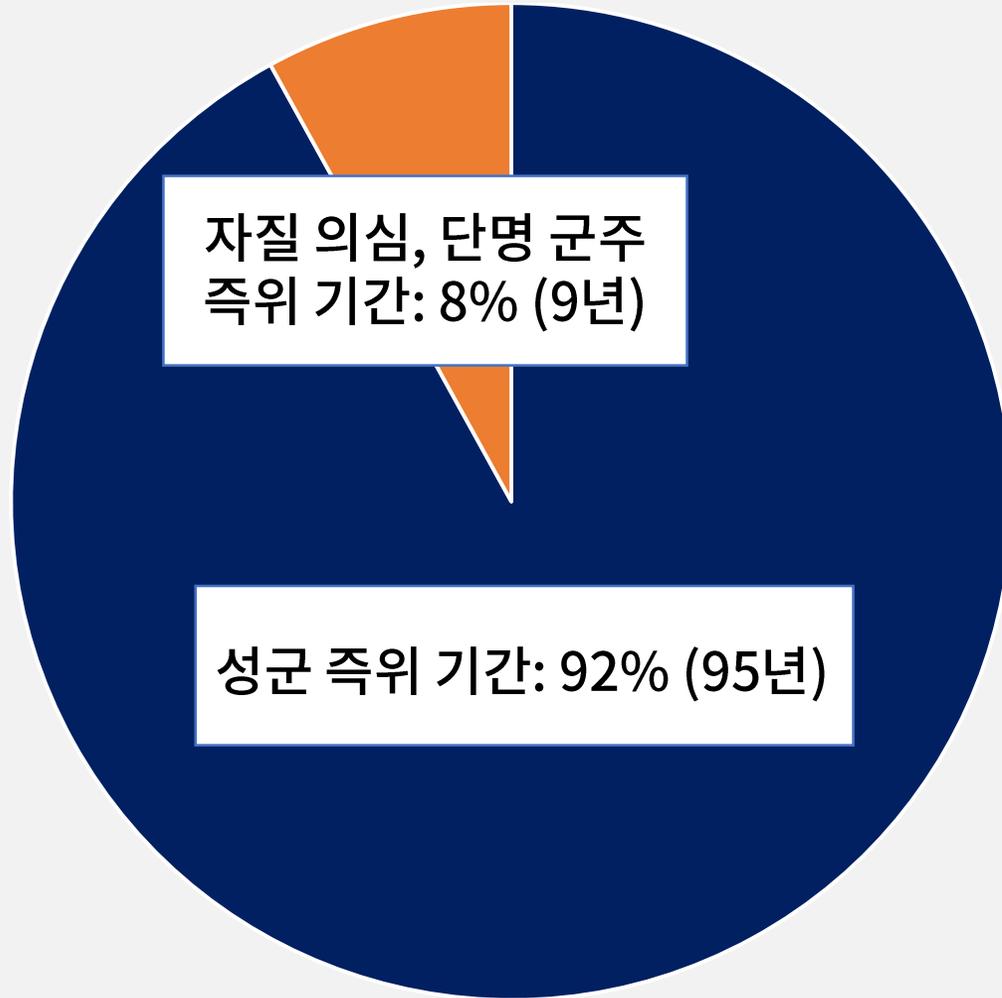
학습내용

- 성군(聖君)과 현신(賢臣)들의 조우
- 경제 발전과 재정 건전성

성군(聖君)과 현신(賢臣)들의 조우

조선왕조의 성군들

- 1대 태조(1392-1398)
- 3대 태종(1400-1418)
- 4대 세종(1418-1450)
- 5대 문종(1450-1452)
- 7대 세조(1455-1468)
- 9대 성종(1469-1494)



조선 초기의 치세 상황

조선왕조의 현신들

- 1대 태조: 정도전, 권근
- 3대 태종: 하륜
- 4대 세종: 황희, 맹사성, 김종서
- 7대 세조: 김종서, 정인지
- 9대 성종: 신숙주, 김종직

경제 발전과 재정 건전성

재정의 지속적인 흑자 상황

- 공적 장치와 공적 기구를 통해 재정 운영
- 호조(戶曹): 국가재정 전담, 왕실 재정도 엄격하게 관리

재정의 지속적인 흑자 상황

- 세조~성종대 재정 개혁: 왕실 재정 60% 감축
- **매년 10만여 석(石)의 세곡을 비축**

성종 말년에 더 이상 비축곡을 쌓을 수 없을 정도가 됨

→ 창고 밖에 세곡을 쌓아 문제가 발생할 정도

재정의 지속적인 흑자 상황

- 중국 역사상 최고의 성세(盛世)로 평가되는
“문경지치(文景之治, 기원전 180~141)”의 상황과 비슷
- “곡식이 썩어나고 창고에는 온갖 재화가 가득한” 상황

15세기 조선 왕조

- ‘문경지치 시대’와 같은 사회

다음 차시에서는

- 연산군(燕山君)의 폭정과 체제 위기



YONSEI
UNIVERSITY
MIRAE CAMPUS

K-MOC

기획·조정

이준희·정다영

교안

이유정·윤승희

영상

김록현